

YTN뉴스가 새로워진다

10월 30일부터 편성 개편 - '뉴스 창', '출발! 8' 등 신설

YTN은 종합 매거진뉴스 '뉴스 창'을 신설하는 등 10월 30일부터 가을 편성개편을 단행했다.

'뉴스 창'은 평일 저녁 7시부터 8시 반까지 90분 동안 진행되는 종합 뉴스다. 지난 수십년간 밤 9시로 고착돼 온 방송 뉴스의 프라임 시간대가 최근 몇 년 사이 8시, 7시로까지 확대, 분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데 주목해, 저녁 7시와 8시대를 아우르는 YTN의 프라임 뉴스다. 뉴스창은 하루의 뉴스를 종합하는 기능과 함께 뉴스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전달하는 '새로운 뉴스'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위성지도 시스템을 통해 뉴스의 현장을 조감해 보는 '새털뉴스(Satellite News)', 주요 뉴스를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전달하는 '뉴스분석실', 뉴스의 인물로부터 직접 뉴스를 들어보는 '뉴스를 말하다' 등의 코너를 통해 뉴스창이 지향하는 '새로운 뉴스'의 틀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이라는 프로그램 이름도 세상을 보는 창(窓), 핵심을 찌르는 창(槍), 뉴스가 넘치는 창(窓)이라는 중의적



진상옥 보도국장이 21일 사원단합대회에서 10.30 편성개편 개요와 업그레이드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 그러면서도 프로그램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결정됐다. '뉴스 창'을 통해 '새로운 종합 뉴스'를 경험할 수 있다.

아침뉴스는 기존의 '굿모닝코리아'와 '출발! 7'에 이어 아침 8시에 '출발! 8'를 신설했다.

한창 바쁜 출근 시간에 시청자를 찾아가는 '출발! 7'과 '출발! 8'은 무겁고 두꺼운 뉴스의 무게를 털어내는 대신 경쾌하고 빠른 템포의 역동성으로 생기를 불어넣

는다. 전형적인 뉴스 포맷의 틀을 과감히 깨는 실험성과 신선한 볼거리로 출근길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칠판 같은 출근길에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화두를 던져주는 '출발! 7'과 '출발! 8'은 출근길의 감초가 될 것이다. 산업 현장의 신기술과 인물 동정을 다루는 시간도 새롭게 마련됐다. 경제 특화시간인 오후 3시 뉴스다.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새롭게 조명할 대형 다큐멘터리도 이번 개편에서 선보이게 된다. YTN이 민주화 2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한 'YTN스페셜-진실' 20부작은 11월 5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 밤 11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주말 프로그램도 한결 다양해진다. 개봉영화를 소개하는 '시네마 투데이'와 재미있고 짜릿한 지구촌 영상을 모은 '토퍽월드' 등이 토, 일요일 집중 편성되고, '네트워크 퍼레이드'에서는 YTN과 전국의 지역 케이블방송사(SO)들이 공동제작하는 새로운 방식의 '내고장 소식'이 소개된다.

수익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자

회사가 주최한 'YTN 2006 사원 단합대회'가 10월 21일 서울 방배동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에서 표원수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 열렸다.

1부 첫 순서인 사장과의 대화에서 표원수 사장은 "요즘은 CI(콘텐츠 혁신)에서 MI(경영 혁신)시대로 수익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지난해 CI는 지국순회설명회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리고 CI가 1~2년에 안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을 당부했다.

표사장은 막대한 인력과 장비, 자금 등으로 무장한 지상파의 기상특보 방송을 볼 때 YTN의 한계를 느끼지만 콘텐츠 혁신의 앞날은 밝다고 예상했다. 표사장은 전국 110여개의 SO중에 20~30개의 전략 SO를 적극 활

콘텐츠혁신...꾸준한 노력 필요 UN취재 강화...뉴욕특파원 검토

YTN 2006 사원단합대회

용해 국내 최대의 전국취재망을 확보하고 해외는 50여명의 해외리포터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3차례에 걸쳐 해외리포터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말했다.

반기문 장관의 유엔사무총장 선출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며 유엔 취재 강화를 위해 뉴욕 특파원 파견을 검토 중이며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표사장은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무난히 흑자를 달성할 것이라며 사원들이 맡은바 직무를 충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진상옥 보도국장이 10.30 편성 개편 개요와 YTN 업그레이드 전략을 발표하고 노종면 뉴스5팀장과 방병삼 뉴스4팀장이 신설 프로그램인 '뉴스 창'과 새로 단장하는 '뉴스 Q'의 운영안에 대해 설명했다.

2부▶ 점심식사를 마치고 잔디구장에서 치러진 족구 대회에서 제작기술팀으로 구성된 기술 A팀이 경영팀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50만원.

3부▶ 단합대회 참가자들이 기다렸던 경품추첨 행사에는 연극티켓부터 등산화, 보스톤 백, 리조트 숙박권, 드라이버까지 무려 12종 110개의 상품이 준비됐으며, 최경순(디지털기획팀) 사수가 최고 대상인 드라이버를 차지했다.



세계의 명견 취재기

누가 2006년을 개의 해 병술년이라 했던가?

2006년 한해는 정말 빨리도 지나가 버린 것 같다. 4월 초 기획에서 11월 1일 방송까지 지금 생각하면 어느 것 하나 호락호락 한 것이 없었다. 오죽하면 좌충우돌 취재라 할 정도였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고생은 분명 좋은 작품으로 보답할 것이라 확신하며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참고 견뎠다.

과연 동물을 매개로 한 영상기획 특집을 어떻게 만들지 쉽지않은 않았다. 개의 언어를 어떻게 처리하며(혹시 멍~~~멍), 영상의 눈높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고심 끝에 세계의 명견은 1부 '야생에서 부활하다' 2부 '아름다운 동행' 3부 '동반의 조건'으로 세상과 만나게 됐다.

이 작품은 방송위원회 콘텐츠 제작 지원금을 받아 제작하게 됐고 촬영기자 2명이 기획하고 촬영한 만큼 두려움도, 기대도 컸다.

44박 45일이라는 긴 여정의 해외 출장은 무더운 여름을 지나 가을로 이어졌다. 하지만, 영국에서의 출장은 취재와의 싸움이 아니라 더위와의 전쟁이었다. 100년 만에 찾아온 폭염 속에 강행군은 계속 되었고 우리가 타고 다니던 취재 차량은 에어컨이 없어서 양쪽 창문을 모두 열고 달리는 기분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였다. 오죽하면 안경을 안 쓰는 정 선배가 선글라스를 바람막이용으로 사용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독일에서는 사냥을 취재 하기 위해 아무런 준비 없



알래스카 썰매견대회 참가자들과 함께(왼쪽 두 번째 정철우, 네 번째 원종호)

이 숲으로 뛰어들었다가 흡혈 곤충들에게 현혈(?)을 당했고 한국에 돌아오니 그 소문은 "너 개에 물린 것 괜찮냐?"는 등 여러 가지 괴소문들로 무성했다.

지금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들이 많았지만 분명 값진 경험을 한 것 또한 사실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도 추억이라고 했던가? 지금 또 다시 현장으로 달려가고 싶은 심정은 왜일까?

호주에서의 덩고 촬영 때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

간은 3박 4일. 과히 넉넉지 않은 시간 이었다. 덩고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을 거란 확신도 없었다. 그러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그저 3박 4일간 프레이저 아일랜드 섬에서 우린 덩고만을 생각하며 기다렸다. 이런 우리의 막가파(?)식 행동에 덩고도 감탄을 했는지 마지막 밤을 넘긴 새벽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의 감동과 환희는 정 선배와 나만의 것으로 한평생 기억에 남을 것이다.

신비로움이 가득한 천혜의 자연 알래스카. 도착하자마자 취재진은 헬기를 타고 빙하가 있는 설산으로 올라갔다. 탄성 그 자체, 눈 부실정도로 환상적인 설산. 썰매견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다. 달리고 싶은 욕구가 강한 썰매견들은 멍에를 매자 지칠 줄 모르고 하얀 설원을 달렸다. 그러나 나는 오랜 취재 기간으로 피곤이 많이 쌓여 고삐를 잡은 팔과 어깨는 끊어질 것 같았다. 너무 힘들었지만 썰매견 대회 참가자들이 우리에게 호호이 척척 맞는 프로라며 야수를 칭할 때, 힘든 것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또한, HD 제작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고 주변에서 묵묵히 물심양면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많은 도움을 준 동료 선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 앞으로 다양하고 더 좋은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제작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종호 영상편집팀

제4기 시청자위원회 구성

YTN 제4기 시청자위원회가 구성됐다. 첫 회의는 10월

25일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시청자위원들과 표원수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양삼승 위원을 위원장으로 김상준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왼쪽부터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유재홍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원장, 임재경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고문,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김영석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 박영미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상준 동아방송대 방송연예과 교수,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명공학부 부교수,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장미희 고양 국제어린이영화제집행위원장은 불참)

정애숙, 여성주간지 '미즈엔' 표지 모델



정애숙 앵커의 세상을 보는 시각과 치열한 뉴스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보람과 힘든 점, 그리고 인간 '정애숙'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를 담았다.

정혜윤, MBC 출연 '톡톡톡! 오후2시' (9.26)



정혜윤 기상캐스터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4시간 시청자들과 함께 하는 날씨 요청으로 소개됐다.

이광범, 중증장애인 돕기 일일호프



이광범(총무부) 사우는 중증장애인 돕기 일일호프를 9월29일 YTN타워 옆에 위치한 페스티벌 호프집에서 열었다. 이광범 사우는 한국뇌성마비 독립생활공동체 '어우러기' 회장으로 매년 후원행사를 열고 있다.

포토 뉴스



재외동포포럼인(11.8)



중국 홍콩연락반(9.13)



스위스 방송사 대표단(10.16)



서울시장 출연(10.11)



신호법 박사 출연(10.13)

포상

특정상 은상
이선아 사회1부, 이동규 영상취재팀-유명 산후조리원 신생아 집단 장염 보도 / 이경재 스포츠부, 김태형 / 윤원식 영상취재팀-대한 아이스하키팀의 공금 유용 보도

특정상 동상
이승윤 사회1부-태권도 단종 부정 발급 보도 / 박종혁 · 이철근 차장대우 부산지국(창원)-3천 세대 대단지 아파트 부지 증금속 오염 보도 / 김범환 · 김경록-광주지국 교도소 내 '전문대학 위탁교육' 부정 만연 보도

우수프로그램상
오수환 부장 디지털뉴스팀, 이강문 뉴스기획팀, 김태운 영상취재팀-YTN 스페셜 <세계의 마천루>

공로상
최유석 기획팀-내부회계관리시스템 구축 유공 / 호준석 뉴미디어팀-야후코리아 생방송과 싸이월드 체보시스템 구축 공로 / 서영진 총무팀-회사 수익 증대 및 경비 절감 / 백영수 타워운영팀-서울타워 탑신내부 비상계단 보수공사 감독 공로 / 이원규 타워운영팀-서울타워 철탑의 항공장애등 교체공사 감독 공로 / 정유신 뉴스팀-신규 뉴스프로그램(출발! 7) 개발 / 스포츠부-2006년 독일월드컵 취재 / 영상편집팀-2006년 독일월드컵 편집 / 강희택 송출기술팀-SO민원 해소 공로 / 정원태 제작기술팀-화면전환용 오디오시스템 구축 / 권혁근 제작기술팀-앵커와 PD간 토크백용 인터럽트 제작 공로 / 박기용 마케팅팀-3/4분기 신규광고 유치 공로 / 이성근 마케팅2팀-광고매출 신장 저변 확대 공로 10.16

YTN 민주화 20주년 특별기획-진실

“다큐멘터리도 YTN이 만들면 다릅니다”

진실

〈YTN 민주화 20주년 특별기획-진실〉 예고편 문구다. 〈특별기획-진실〉은 YTN이 공들여 내놓는 대작이다. 20편에 이르는 편수도

창사 이후 최대 규모이고 제작진의 면면도 그렇다.

‘진실’의 진실

〈진실〉은 민주화 20주년(1987년 6월 항쟁 기점)을 맞아 제작되는 현대사 다큐멘터리 20부작이다. 지난 11월 5일, 1편 〈사랑을 시작하다, 전태일〉편이 방송됐다.

〈진실〉은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차별화된 작품을 지향한다. 민주화가 이뤄졌지만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화 세력’과 ‘근대화 세력’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과거의 대립을 미래 지향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전기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이것이 ‘진실’의 화두이고 고민이다.

다큐 + 드라마 = 다큐라마

현대사 다큐멘터리도 재미있고 감동적이어야 한다. 아무리 의미가 있어도 시청자가 외면하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드라마 기법이 도입됐다. 그러나 드라마는 어디까지나 다큐멘터리, 즉 리얼리티를 ‘도울’ 뿐이다. 재연

의 토씨 하나도 철저히 자료에 근거해 만들었다. 전태일 분신장면 재연은 영화에선 있었지만 방송에선 처음 해 본 시도다. 88 서울 올림픽 개, 폐회식을 연출한 ‘대한민국 대표 PD’ 표재순씨(연세대 특임교수)가 제작자문을 맡고 최정상급의 연출,작가 진용이 구성돼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사람의 얘기, 사랑의 얘기

단면(斷面)의 진실은 진실이 아닐 수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봐선 안 된다. 종합적인 진실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투쟁’과 ‘영웅’의 얘기가 아닌 ‘사람’과 ‘사랑’의 얘기를 다루려고 애썼다. 1편에서 최초로 공개된 전태일의 사업계획서와 첫 사랑 얘기도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다보니 나오게 됐다. 수많은 관련 다큐와 영화에서 찾아내지 못했던 얘기들이다. 이 밖에도 제작중인 각 편마다 새로운 진실들이 발굴되고 있다.

김수환 추기경으로부터 “민주화 운동 30년은 그의 삶 자체였고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민주화 운동은 없었다”는 평가를 받은 김정남씨(전 청와대 교육문

화수석)의 자문과 고증도 큰 힘이 됐다. “민주화 20년은 자성과 성찰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하는 김정남 전 수석은 그동안 일부만, 혹은 잘못 알려진 채 검증 없이 전승돼 온 사실들을 바로잡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20-20, 11.5-11.5

민주화 20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된 HD 20부작 다큐멘터리 〈진실〉.

첫 방송은 공교롭게도 11월 5일 11시 5분이었다. 앞으로도 매주 일요일 11시 5분과 화요일 오후 3시 5분에 방송된다. 많은 시청자들이 일요일 밤 11시 5분에 진실을 만나고 진실을 찾았으면 좋겠다.



다큐멘터리 사상 처음 시도된 전태일 분신 장면

제작진 인터뷰



조 한 선 (연출)

- MBC PD, SBS 편성기획팀장, iTV 편성제작국장
- (현)리얼리티 비전 대표
- MBC 〈인간시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광복 60주년 특별기획-천상의 바이올린〉 등 연출

〈YTN 특별기획-진실〉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처음엔 너무 어려운 주제라 많이 망설였다. 그러나 자문을 맡은 김정남 전 수석 등을 만나 기획회의를 하면서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작품이다’라는 믿음이 생겼다. 특히 ‘민주화의 빛과 그늘을 균형 있게 다루면서 사람과 사랑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취지가 마음에 와 닿았다.

국내 최정상급의 제작진이 투입됐다는데?

나만 빼면 그렇다(웃음). 시사 다큐의 베테랑 PD들이 대부분 지상파 방송사에서 소속돼 있기 때문에 진용 구성이 가장 고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지 최근 현역에서 물러나 대학교수가 된 이규정(경기대), 홍순철(한국예술종합학교) 두 분이 합류하면서 좋은 진용을 갖추게 됐다.

국내에서 시사다큐 PD로는 가장 유능하고 합리적인 분들이라 생각한다. 김옥영 작가(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는 ‘거장’이라 불려도 손색없는 분이고 최은영,오정오 작가도 최정상급 작가들이다.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타 방송사의 작품들과는 어떻게 다른가?

한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갈등과 대립 대신 화해와 진실을 추구한다’는 제작 취지를 늘 마음에 두고 있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특히 민주화 운동의 반대편에 있었던 분들의 입장도 최대한 담으려고 한다. 현실적으로 그 분들의 증언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지만 끝까지 노력할 계획이다. 과거의 유사 프로그램들을 보면 인터뷰를 거부하면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집 앞에 카메라를 들이대기도 했지만 무조건 죄인 취급하면서 대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방식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다큐라마’라는 형식이 도입된다는데?

‘재연’ 하면 보통 경박한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진실’에서는 품격을 잃지 않는 드라마 기법과 따뜻한 일러스트를 활용해 형식의 차별성을 이룰 생각이다. 다큐멘터리의 리얼리티를 지키면서 재미를 더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20편 모두에 다큐라마 형식을 도입할 수는 없고 주제마다 가장 적합한 제작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제작진의 각오를 들려달라

제작진 모두 YTN이 쌓아온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 팀에 합류했다. 우리가 YTN 사람이라는 자세로, 우리가 만드는 작품이 YTN의 이름에 흠이 돼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 옥 영 (작가)

- KBS 〈다큐멘터리 극장〉, 〈역사의 라이벌〉, 〈인물 현대사〉, 〈광복 60주년 다큐 -8.15의 기억〉 등 100여편 집필
- 1992년 한국방송작가상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겸임교수

〈YTN 특별기획-진실〉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1987년 6월 항쟁은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20년을 맞는 시점에서 민주화의 주요 사건과 인물들을 일괄해서 정리해보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했다. 과거 민주화의 역정이 오늘날의 현실적,경제적 문제 때문에 폄하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물론 중요하지만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애써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한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요즘엔 그 두 가지를 혼합해서 민주화의 가치까지 폄하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은지?

각 편마다 방법론은 다르겠지만 관계자 인터뷰와 자료의 일률적 나열을 지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전해보려고 한다. 저는 같은 소재라 해도 시청자들이 볼 때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을 선호한다. 어떻게 하면 시각과 방법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만들고 있다.

화해와 진실을 지향한다는 것이 제작 취지인데?

진정한 의미의 세대간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실의 가치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사적 공과는 명백하게 판단해야 하고 무조건적 화해나 용서가 안되는 사안도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편을 갈라 버리는 것은 곤란하다. 예컨대 젊은 세대들이 모 전직 대통령의 손자나 손녀라고 해서 무조건 중요하는 식의 ‘정신적 연좌제’는 안되는 것 아닌가. 선입견으로 증오나 적대감을 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이 중요하다. 우리가 다루는 아 이템 중에 10.26 사태 때 김재규씨의 부하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역사에서 매우 아이러니컬한 입장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그런 이들의 고뇌를 담고 싶다.



참가기

경품 추첨자에 당첨

메일 센터에 들어갔다가 사원단합대회 공지를 발견했다. 나도 모르게 '아!' 하고 탄식이 흘러나왔다. 모처럼 쉬는 토요일인데 웬 회사 행사란 말인가.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기수 중에서는 나 혼자 행사에 참여한다는 비보까지 날아들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수습 기간 중에 가장 원망스러웠던 것은, '총계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유전자에는 각인돼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제를 조금만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로 했다. 우선 경찰서의 귀퉁한 공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 아닌가. 게다가 이번 '야외 활동'에서는, 거의 매주 나가는 '휴일 스케치' 때처럼 '한가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는 시민'에게 마이크를 들이댈 필요가 없으니 마음은 가볍지 않겠는가.

가벼운 마음으로, 고3 동생의 옷장에서 빼앗은 옷을 입고 단합대회 장소에 도착했다. 오전에는 회사의 발전 방안, 편성 전략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아무래도 나는 10월 말의 편성 개편 이야기가 가장 피부에 와 닿았다. 물론 수습을 갖 뎀 내가 두세 시간의 설명만 듣고 나서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한다면 거짓이리라. 그러나 24시간 뉴스의 특장을 살려, 축축 늘어지지 않고 생동감 있는 뉴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는 내게도 충분히 전달됐다.

점심 식사 후에 진행된 체육 행사의 종목은 축구였다. 바지 아랫단을 양말 속에 집어넣은 채 열심히 공을 차시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

다. 하지만 다음 단합대회 때에는 여사원들도 마음 편히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갑자기 모두가 한 곳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경품 추첨이 시작된 것이다. 따뜻한 가을볕을 쬐는 암탉처럼 졸고 있던 나 역시 정신을 차렸다. 나는 회사의 막내라는 이유로 추첨자가 되는 기회도 얻었다. 주위에 앉아 계시던 선배들이 진정이 담긴 눈길을 보내며 나지막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주예야, 내 번호는 18x번..... 부탁한다."

그렇게 추첨은 진행됐고, 이제 경품이 몇 개 남지 않게 되었다. '백만 원 상당의 드라이버'가 1등 경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엔 어리둥절했다. 나사못을 박거나 빼는 데 쓰이는 물건이 백만 원씩이나 한다니 어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드라이버의 정체를 우연히 깨닫고 나자, 이번에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나는 물론이요 집안 식구들 가운데에도 골프라운 치는 사람이 없어서 처분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곧 내 걱정은 그야말로 '기우(杞憂)'였음이 밝혀졌다.

나는 추첨자로만 당첨됐을 뿐 당첨자로는 끝내 당첨되지 못할 운명이었던 것이다. 수습 딱지를 떼 뒤 처음으로 참석한 회사의 공식 행사. 나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단합대회에 참여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1년 365일 가운데 단합 대회를 하지 않는 364일에도 단합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원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때 가능할 터이다.

그렇다면 지금, 사건기자인 내가 치중해야 할 일은 언론사의 '더불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홍주에 사회부

해외리porter 초청연수

해외방송팀은 9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리porter 12명을 초청해 리포트 제작 등 방송제작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선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방송사와 신문사, YTN 기자 등이 강사로 참여해 방송 실무 이론과 축적된 현장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 리porter들은 '글로벌 코리아' 제작과정을 참관하고 YTN 방송시설 등을 둘러봤다.



왼쪽부터 신준섭(칠레), 이준형(브라질), 심고우리(프랑스), 한철(중국), 이혜민(베트남), 고용철(파라과이), 나희진(캐나다), 최대석(리투아니아), 이은경(필리핀), 유연이(홍콩), 유용제(LA), 최아란(싱가포르), 박금정(멕시코)



연수기

“엔벤에서 YTN인터내셔널 한철입니다”

“엔벤에서 YTN인터내셔널 한철입니다...” 이렇게 말한지도 어언 1년3개월이 넘었다. 처음 해외리porter연수에 다녀와서 많은 걸 느꼈다. 떠날 때는 감격스러워서 떨렸고 도착하니 벽차기만 해서 떨렸다.

내가 그동안 찍어낸 작은 영상들이 대한민국의 대표 뉴스채널을 통해서 가가호호(家戶戶)에 방송됐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YTN을 시청할 수가 없다. 비싼 스카이라이프를 볼 수 있지만 불법이라 빼앗길 위험이 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인터넷으로 본다. KBS, MBC, SBS를 제외하면 동포사회 자존심인 엔벤방송의 뉴스시청률은 바닥이고 YTN까지 찾아보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내가 처음 취재했던 2005년 6월, YTN이 뭔지도 모르면서 마구잡이로 취재에 뛰어 들었다. 하필 첫 번째가 중국산 짝퉁 한국화장품 고발 리포트였다. 현지인은 YTN이 뭔지도 모르고 나오려는 YTN을 소개하거나 설명할 여건도 안됐다. (YTN이 뉴스전문채널이고 서울에 있다는 것만 알았다)

신분을 증명할 한 장의 종이장도 없이 나의 욕망으로만 취재를 해야 했다. 급기야 그때 몸담았던 엔벤방송의 이름을 대고 취재했다. 그때 일을 엔벤방송에서 알았다면 나는 진작 정치판에 올랐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설픈 첫 리포트가 어렵게 방송됐고 ‘그래 이제 공식 임명이 떨어지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연속 3건의 리포트를 해야 신분증을 발급한다는 해외방송팀의 연락에 뒷머리만 긁어야 했다.

3건을 어떻게 완성해야 할지... 앞이 막막했다. 그럼에도 열의에 받쳐 그동안 친분이 있던 사람들을 취재원으로 해서 인터뷰, 갖은 거짓말을 해가면서 취재를 마쳤다. 그런 와중에도 영상인터뷰만 고집하는 해외방송팀이 밍게만 생각했다.

그런데 일은 제대로 안 되는 법, 추석특집기사 촬영하러 조선족이 집거한 타지에 떠났다가 촬영장비와 비디오테이프 등을 전부 도둑맞았다. 하도 허무해 말도



왼쪽부터 김여진(글로벌리porter 진행자), 한철

나오지 않았다. 열차타고 11시간... 원 거주지로 돌아오는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멍하니 바깥만 바라보았다. 방송을 앞두고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당시 특집기사 담당하셨던 김앵커님께 죄송하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다시 이리다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의 얼마 안 되는 적금을 다 털어서 카메라를 새로 샀다. 그런데 실상가상으로 그동안 써오던 쇼팡몰에서 사기를 당했다. 급히 사다보니 판매자의 신용을 미처 확인 안하고 선불금을 지불했으니 사기당한 건 뻔한 일이었다. (사기사건은 하도 창피해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도 못했다.)

도둑맞거나 사기당한거나 공안에 가서 신고하긴 했지만 그건 희망사항이 아니었다. (중국에서는 이런 사건이 하도 많이 발생해 공안에서는 거의 처리하지 않고 깔아둬.) 눈 깜짝할 사이에 120만원을 날린 거니까 아예 이불을 덮고 드러누워 버렸다. 결국 보다 못한 아버님이 돈을 대줘서야 새로 카메라를 구입하고 일을 시작하게 됐다. 지금도 생각하면 악몽 같은 일이라 말하기도 싫지만 사실은 그랬다.

해외리porter 연수 때 삼각대를 꼭 가져 오라고 했다. 웃기는 일일수도 있지만 나는 삼각대 대신 단각대를 쓴다. 서울에서 말하니 모두 의아해 했다. 중국도 단각대가 그리 흔한 편이 아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상하

이에서 우편으로 구매했다. 내가 단각대를 쓰는 이유는 촬영현장을 빨리 정리하고 떠나기 위함이다. 이제는 촬영장에서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질문이 그 누구의 입으로부터 불쑥 나올까봐 늘 두렵다. 물론 지금도 늘 숨어 다니면서 찍는 게 대부분이다. 명함도 거주지를 전부 지운 명함으로 바꾸었고 연락처도 늘 바꾼다. 그렇게 열심히 숨느라 노력하지만 그리 만족할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생전 처음으로 들어만 봤던 안전부에 가서 심문도 받았으니 나는 정말로 ‘영웅’ (?) 이었다.

내가 중국국적이면서 TV리포트에서는 한국정부를 ‘우리정부’로, 동북공정이며 왜곡된 중국역사교과서를 보도하면서 중국정부에 빨리 대처해야 한다는 등... 솔직히 중국국민으로 말하면 정신빠진 놈 아니고서야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저랑할 일’도 있다. 중국 조선족의 불법출국을 여러 번 보도하면서 주선양 영사관은 그야말로 더 정예화됐다. 나도 연수하러 떠날 때 엔간히 힘들었다. 이리 뒤틀고 저리 뒤틀고 힘겨웠다. 친구들은 내가 판 구덩이에 내가 빠진 거라며 당연하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하긴 나도 ‘조선족 이니 주선양영사관은 ‘이유’가 얼마나 당당했을까. 그런 내가 해외리porter 연수에서 상을 받았다. 미묘하게도 종이 한 장으로 지난 1년3개월간의 어려운 일들을 쉽게 떠올랐다. 맨몸에 취재를 하며 떨렸던 순간, 도둑과 사기를 당했던 순간, 한민족의 미래를 고민하며 보도에 임했던 순간, 안전부의 심문을 받았던 순간, 해외에서 당한 한국인들의 사고가 세상에 덮이지 않게 하려고 흥분했던 순간들... 잘해서 뿌듯하다는 것보다는 그동안의 내 사정을 YTN에서 알아주는 것 같고 해외방송팀에서 다독여주는 것만 같아서 행복하기 그지없었다. 종이 한 장으로 나는 과거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담을 수 있었다. 정말 그랬다. 나는 오늘도 작은 컴퓨터에 의존하며 YTN을 힘차게 부른다. “엔벤에서 YTN인터내셔널 한철입니다”

한 철 엔벤리porter

YTN 방문기

많은 설렘을 갖게 한 YTN

YTN은 역시 생각만큼이나 크고 높았다. 17층 회의실에서 홍보팀장으로부터 간단하게 YTN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홍보팀 차장의 안내로 YTN의 이곳저곳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언론사여서 경비도 엄격했고 사람들도 많았다. 그리고 다들 바쁘고 정신없어 보였다. 먼저 20층에 가서 스튜디오를 구경했다. 아쉽게도 생방송 뉴스가 진행 중이어서 스튜디오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대신 밖에서 앵커들이 진행하는 것을 지켜봤다. 실제 뉴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니 너무 신기했다. 그리고 비어있는 다른 스튜디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스튜디오 안은 눈부신 조명과 많은 카메라들이 있었고 카메라에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사진을 찍으며 다들 신기해하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어여쁜 아나운서들이 많이 있어서 첫 눈에 바로 들어왔는데 남학생들이 더 좋아하며 시선을 옮기려 하지 않았다.

바로 아래층의 보도국 사무실. 현장 취재를 나간 기



9월 20일 YTN을 방문한 청주대 학생들이 DMB 설명을 듣고 있다.

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기자는 정신없이 바쁘게 현장을 누비는 직업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편집실에서는 직접 편집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설명도 해줬다. 여러 과정을 통해 편집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정말 섬세하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다음으로 YTN 자회사인 YTN DMB를 둘러봤다. 그곳은 이동하면서 휴대폰으로 TV를 볼 수 있는 DMB 방송을 만드는 곳이었다. 아직은 그다지 활성화 되지 않아 프로그램 중 80%는 YTN 프로그램으로 방송하고 나머

지 20%를 직접 만들고 있다. 그곳에서 DMB에 대한 새롭고 많은 정보들을 배웠다. DMB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졌으며,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독일에서 시도 됐다는 사실, 또 청주에서는 볼 수 없지만 내년 5월에는 볼 수 있다는 사실 등. 앞으로 3년 안에 시청자수가 3만 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현재 개발 중인 부가서비스의 커뮤니티들은 DMB의 활발한 사용량 증가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견학 내내 잘 이끌어주시고 안내해 주셨던 홍보팀 관계자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새로운 것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항상 즐거운 일이다. 짧지만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오늘의 YTN 견학은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김애란 청주대 광고홍보학과 3년



박형일의 디지털 칼럼 <4>

Digital NewsRoom System

10년 후, 사람들은 어떤 미디어로 뉴스를 접할까? 케이블 뉴스채널 · 지상파뉴스 · 신문 · 인터넷 · IPTV · Mobile Phone, 그리고 또 어떤 미디어가 존재할까? 10년 후 시청자의 취향은 어떻게 변화할까? -자신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놓아두지 않는다. - 우리는 이미 방송이나 신문으로 뉴스를 접하기보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접하는 경향이 더 많아졌고, 앞으로도 더 많은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디지털화된 멀티미디어 형태일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YTN은 미래의 수많은 뉴미디어에 대응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는가?

디지털뉴스룸의 필요성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빠르고 차별화된 뉴스를 새로운 미디어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새로운 미디어에 필요한 동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팀과 인원을 계속해서 구성해나가거나, 제한된 일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새로운 콘텐츠의 생성은 서로의 의견공유를 통해 연구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촬영된 동영상에 대한 공유는, 바로 새로운 콘텐츠의 생성과 혁신에 밑거름이 된다. 즉, 디지털융합시대에 대응이 가능한 새로운 대응시스템과 콘텐츠혁신을 위해 효과적인 디지털뉴스제작시스템이 경쟁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디지털뉴스룸은 IT기반의 Multi-Use 제작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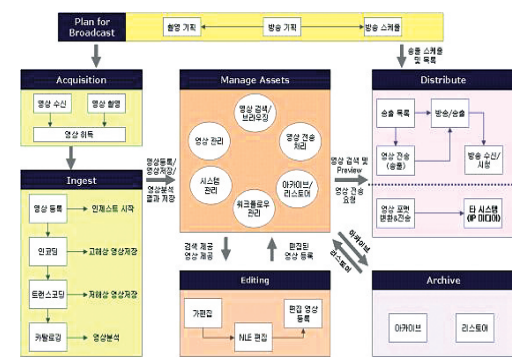
최근의 디지털 방송장비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컴퓨터에서 편집이 이루어지며, 디지털 파일형태로 Network을 통해 교환되고 공유된다.

보도정보시스템으로 기사의 공유가 이루어지듯이, 디지털 뉴스룸시스템은 영상을 중앙저장장치에서 공유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컴퓨터에서 검색하고, NLE로 편집하여 송출부조로 영상을 보내는 시스템이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VCR 편집기는 사고 싶어도 없다.) 노트북에서 녹취 및 리포트 녹음을 하고, 필요에 따라 음향과 Still 그래픽의 관리도 포함된다. 그리고 공유된 영상을 특화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위해

재편집하고, 인터넷 등의 각종 IP 미디어로 Republishing이 간단해 진다.

디지털뉴스룸시스템의 업무 흐름

디지털뉴스룸시스템에서는 취재한 방송용 고화질영상을 입력하면, 동시에 검색을 위한 카달로그 영상과 저화질 영상을 생성하고, 이것을 관련된 여러 사람이 동시에 PC에서 윈도 우미디어플레이어로 영상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단순한 가편집도 가능하며, NLE(Non linear Editor)에서 최종 편집하면, 방송스케줄에 따라 부조정식 비디오서버로 보내어져서 송출된다. 취재원본영상은 보관(Archive)정책에 따라 -보통은 일정시간동안 검색을 하지 않는 영상- Archive Tape로 자동 저장된다.



<그림. 디지털 뉴스룸의 구성 및 업무흐름>

디지털시스템의 구축

디지털뉴스룸과 아카이브시스템은 단순한 장비의 조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업무의 흐름에 적용할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디지털시스템을 갖추고 과거의 업무흐름에 맞추고자 한다면 시스템의 구축은 투자대비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디지털로 제작하고 방송하는 시대는 아날로그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반대로 디지털화에 따른 복잡성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

박형일 차장대우 디지털기획팀

게시판

■ 기구명칭 변경

마케팅국 매체관리팀 → 마케팅국 매체협력팀 10.12

■ 입사

우정미 국제부 10.9 / 전주영 · 이현수 · 정해진 영상편집팀 10.25

■ 퇴사

홍해주 사업팀, 윤서연 국제부 9.20 / 이종섭 총무팀, 손준수 · 김정성 · 이규용 영상편집팀 10.10 / 최완식 총무팀 10.31

■ 승진 (차장대우)

유현홍 · 호준석 뉴미디어팀, 박형일 디지털기획팀, 노종면 뉴스5팀장, 정동균 편성운영팀, 김중균 · 김영수 · 오점곤 정치부, 이교준 · 현덕수 경제부, 이병식 · 홍성혁 · 유종섭 사회1부, 김진우 사회2부, 김범환 · 김경록 광주지국, 조영권 전주지국, 김상의 · 황보선 스포츠부, 김진두 · 김지영 문화과학부, 이승훈 국제부, 김문경 앵커팀, 정지원 · 범희철 그래픽팀, 이동형 · 김정환 영상취재팀, 최준영 · 김인규 영상편집팀, 유화성 기술관리팀, 최상섭 · 유근민 · 이현직 제작기술팀, 오민철 총계팀, 정태걸 마케팅기획팀, 백상기 매체협력팀 11.7

■ 전보

우장근 마케팅기획팀장 사업팀장 겸임 9.21 / 김백 마케팅국장 직무대행, 유석현 CQ1, 김승환 CQ2 겸 뉴스6팀장, 박성호 CQ3 겸 뉴스1팀장, 김홍규 편성운영팀장, 천상규 사회1부장, 김호성 스포츠부장 직무대행, 유재우 뉴스2팀장, 김형근 뉴스3팀장, 방병삼 뉴스4팀장, 노종면 뉴스5팀장, 이재운 앵커팀장, 류희림 해외방송팀장, 심창래 사업팀장, 김천석 매체협력팀장, 신동운 부국장 홍보심의팀, 조승호 차장대우 정치부, 강성웅 차장대우 사회1부, 박상남 차장 사회1부 10.12 / 정재훈 뉴스기획팀, 김중균 · 오점곤 · 김선중 · 신호 · 박소정 정치부, 김원배 차장 · 이교준 · 유두권 경제부, 홍성혁 · 정유신 · 장민수 · 이종구 · 홍선기 · 권준기 사회1부, 윤종수 차장 사회2부, 권영희 · 최영주 문화과학부, 황보선 · 배성준 스포츠부, 박병환 차장 · 이상순 국제부, 이종국 차장대우 · 김익현 해외방송팀, 이동우 차장대우 · 박경석 · 김세호 뉴스1팀, 이강문 · 오승엽 · 정병화 뉴스2팀, 이승은 뉴스3팀, 이경아 · 황보연 뉴스4팀, 김중욱 · 고한석 뉴스5팀, 이양현 차장 · 한상욱 · 김준영 뉴스6팀, 김경아 앵커팀, 노옥상 · 권혁용 · 최영호 · 김정원 영상취재팀, 원준호 · 박관우 · 김태운 · 최준영 · 김윤석 영상편집팀, 정철우 · 박정호 영상기획팀, 김한성 디지털기획팀, 신현민 총무팀, 이병근 부장 · 심재영 부장대우 마케팅위원, 한상규 차장 · 이승주 · 김규남 · 장훈희 사업팀, 기구개편에 의한 발령 매체관리팀 → 매체협력팀 10.19 / 김용섭 차장대우 기획팀 11.7 / 안재열 부장대우 마케팅국 마케팅위원, 설명수 마케팅2팀장, 김해중 차장 사업팀, 박기웅 · 인호연 마케팅기획팀, 전병곤 차장대우 마케팅팀, 이병우 마케팅2팀, 장훈희 매체협력팀 11.10

■ 부음

홍문표 CQ4 부친상 10.18

■ 결혼

김갑재(총무팀) 9.9 / 김정원(영상편집팀) 9.17 / 김태훈 청주지국장 자녀 9.23 / 양해경(문화과학부) 10.28 / 김수진(사회2부) 11.4 / 원인식(청주지국) 11.4 / 최준영 차장대우(영상편집팀) 11.18

프로그램탐방 - 마이티엔 뉴스

“바쁜 당신을 위해 맛난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불고기, 곰탕, 냉면, 갈비, 족발, 비빔밥, 스테이크, 생선회, 각종 디저트까지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음식은 전부 다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마음껏 드십시오.”
 “정말 대단하군요. 하지만 전 시간이 10분 밖에 없으니 그냥 생선회만 주세요”
 “저런, 생선회는 20분 후에나 나오는데 어찌죠?”
 “.....”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앉아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차려 놓은 음식을 천천히 골라서 원하는 만큼 다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잠깐 짬을 내서 식사를 해야 하는 사람이나 바빠 길을 가는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새가 없어 원치 않는 음식만 먹다 끝나기 십상이겠죠. 그럴 때 누군가 생선회 5개와 불고기 몇 점, 여기에 치킨 샐러드를 넣고 커피 한잔을 곁들인 도시락을 싸준다면 어떨까요?

왜 DMB 뉴스냐고요?

〈마이티엔 뉴스〉를 기획하면서 가장 먼저 저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바로 “YTN이 24시간 뉴스를 하는데 왜 따로 뉴스를 해야 하는 거야?”입니다. 이 질문에 가장 와 닿을 법한 답변을 찾다 보니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이티엔 뉴스〉는 이런 생각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DMB 이용자들을 위해 싸는 뉴스 도시락

YTN의 2시간짜리 메인 뉴스들이 잘 차려진 진수성



마이티엔 뉴스 진행자
 왼쪽부터 이주선(오전 11시30분 진행) 박소현(교통·기상캐스터) 김지연(오후 5시30분 진행)



마이티엔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 왼쪽부터 최광희, 김현애, 채명진, 이주선, 박소현, 박선우, 김지연, 이란정, 오윤정, 김영목, 최성진, 장중현

찬이라면 20분짜리 DMB 뉴스는 바쁜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파는 샌드위치나 김밥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패스트푸드들이 그런 것처럼 간신히 배고픔만 달래줄 수 있는 정크푸드가 되어선 안 되겠지요.

저는 〈마이티엔 뉴스〉를 ‘맛난 음식이 알록달록 예쁘게 담겨진 실속 있는 도시락’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일단 먹기에 간편해야 하고 먹음직스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입안에 넣었을 땐 새콤달콤 여느 음식들과는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조금 욕심을 내서 영양까지 골고루 갖출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요.

도시락 뉴스의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 하나. “편식은 금물” 주요뉴스!
 영양가 있는 뉴스를 위해 주요뉴스를 간추려 브리핑합니다. 귀에 잘 들어오도록 간추리고 쉬운 말로 리라이팅합니다.
- 둘. “양념이 있어야 제 맛” 영상 다이어리!
 텔레비전의 핵심은 ‘video’ 인 만큼 ‘보는 맛’이 있어야 합니다.
 생생한 뉴스 화면이나 인터넷에서 전방위적으로 찾아낸 화제의 영상들을 소개합니다. 주로 재미있고 흥미를 유발할 만한 토픽성 아이টে이프로 이 코너는 YTN <출발 7>을 위해 따로 녹화합니다.
- 셋. “객관(客觀)에 토 달기” GOOD NEWS & BAD NEWS!
 하루 동안 있었던 따뜻하고 기분 좋은 소식과 좋지 않은 소식 하나씩을 선정해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합니다. 객관적 팩트에 간단한 코멘트를 덧붙여 시청자와의 공감대를 만드는 미니 칼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 넷. “따끈따끈한 연예가 소식” 연예 핫뉴스!
 다섯. “노무현부터 이효리까지...” 오늘의 뉴스메이커!

가장 이슈가 됐던 인물들에 관한 소식을 짧게 브리핑하는 인물뉴스입니다. 대통령부터 운동선수, 연예인까지 골고루 선정합니다.

여섯.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길거리설문 ‘말해줘’

그 날의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거리로 나가 들어보는 즉석 설문 인터뷰.

일곱. “앵커는 내 친구” 앵커의 제안!

클로징에서 앵커는 뉴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건강 정보나 생활의 지혜를 귀띔해 줍니다. DMB 앵커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제3자가 아니라 시청자에게 친구같은 친근한 존재였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없는 살림(?)에 조출하게나마 이렇게 상을 차릴 수 있는 것은 YTN 보도국에서 열심히 뛰고 계신 선배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 지면을 빌어 DMB 뉴스를 도와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레시피를 주~욱 늘어 놓고 보니 찬이 많은 거 같아 배가 부를 것도 같은데 아직도 허기를 채우기엔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그래 봤자 뉴스가 뉴스지 뭐...” ‘다름’의 한계를 넘어서 그렇습니다. 뉴스는 뉴스일 뿐입니다. ‘그 밥에 그 나물’. 별나게 해보고자 해도 사실 별반 다를 것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YTN 뉴스와의 차별화는 DMB 뉴스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인 동시에 DMB 뉴스가 풀어가야 할 영원한 숙제입니다.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던져 버릴 순 없습니다. 조금증을 내다 이내 좌절해 버리지도 않겠습니다.

마이티엔의 뉴스팀원들은 내일도 부지런히 도시락 반찬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차별화된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요자가 맛나게 먹을 만한 찬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DMB 시청자들은 주문서에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전부 다는 필요 없어요. 알짜배기만 주세요”

오윤정 <마이티엔 뉴스> 담당 PD

연수보고서 - 호주 University OF Sydney

시드니에서 한반도 '평화' 찾기

“Wishywashy”

시드니 대학 평화분쟁연구소.

UN문제 전문가인 Wendy Lambourne 교수는 첫 강의에 앞서 ‘평화’에 대한 학생들의 정의를 주문했다. “absence of war”, “absence of violence”, “presence of social justice”, “harmony and cooperation”, “coexistence of different cultures and societies”... 돌아가며 한 마디씩 하는 중간에 한 학생이 뭐 그렇게들 심각하냐는 표정으로 “wishywashy”라는 표현을 썼다.

교수가 잠시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리고 내게 물었다. 지금 나온 뜻을 알겠느냐는 확인이었다. 당황했다. “처음 듣는 단어다. 물론 ‘wish’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wash’가 뭔지는 분명히 알고 있다. dishwasher도 알고 있고...” 폭소가 터졌다. ‘Key Issues in Peace and Conflict Studies’, 해외연수 첫 수업은 그렇게 시작됐다.

시드니의 한반도 체감온도

출국 전 내가 선택한 연수주제는 ‘테러리즘과 미디어’, 세부적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외국 언론의 시각’이었다. 구체적 사례는 ‘북핵’.

부시-체니-라이스-볼튼 등으로 이어지는 우익 집단 부시행정부의 세계전략은 9.11 이후 안티테러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최절정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은 한결같이 반테러법을 통과시켰고, 미국이 지명하는 테러국은 갈수록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음을 지구 반대편에서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미국이 ‘악의 축’으로 지명하는 순간 해당국은 미국 중심의 국제사회로부터 왕따가 되고 만다는 사실, ‘테러’대 ‘반테러’, 이른바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은 이제 지구촌의 이데올로기가 돼버리고 말았다. 다니엘 벨이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고한 지 반세기가 흘렀지만, 이제는 테러와 반테러라는 이름의 이데올로기가 지구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연수 기간 동안 강의실에서 내가 제기한 의문은 크게 두 가지였다. 누가 ‘테러’를 정의하는가? 무엇이 테러이고, 또 무엇이 반테러인가?

지구 반대편, 시드니에서 체감한 한반도 평화지수는 높고 낮음을 떠나 일단 진지했다. 모든 과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필자가 공부한 평화분쟁 연구소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서부터 탈북자 인권문제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상황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

싱가포르 출신 제이미 고라는 여학생은 “금강산-한반도의 평화대사인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을 정도로 한반도 문제에 정통했다. 그러나 역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예외 없이 ‘테러리즘’으로 귀결된다. 그런 면에서 2000년 8월 평양과 2001년 9월 뉴욕이라는 기자로서의 공간체험은 짧은 영어로도 주변의 관심을 끌기에 별반 손색이 없었다.

“When I was in Pyongyang” 혹은 “I was in New York at that time”을 시작으로 내가 버벅거리기 시작하면, 그들은 늘 귀를 쫓긋 세웠다. 그러면서 점차 내 귀도 그 알아듣기 힘들다는 오지(Aussie)식 영어 발음에 조금씩 적응해갔다.

누가 더 테러적인가?

테러리즘이 주 전공인 평화분쟁연구소 켄 맥넵 교수는 9.11 이후 미국은 테러리즘을 이슈로 ‘선과 악’, ‘문명과 반문명’이라는 이분법적 대결구도를 확산시켜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이 내세우는 기준에는 ‘제 눈에 안경’ 식 도그마가 자리 잡고 있다.

구체적 사례를 보자. 지난 2003년 이라크 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인 희생자 수는 2천3백여 명, 반면에 이라크인 희생자 수는 10만 명을 헤아린

다. 경악할 만한 수치는 민간인 희생자 수다. 지금까지 줄잡아 4만여 명에 이르는 무고한 민간 이라크인들이 사망했다(<http://www.iraqbodycount.net/database>). 반면에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테러리즘으로 인해 사망한 미국 민간인 수는 56명에 불과하다(<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65498.pdf>).

당연한 듯 보이는 이 같은 객관적 지표는 그러나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전시 또는 준전시 상황에서 비전투 요원으로서의 평범한 시민에 대한 실제적이고 위협적인 공격을 테러리즘이라고 정의할 때, 누가 더 테러적인가는 자명해지기 때문이다.

부끄럽지만, 9.11 당시 나는 현장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cnn의 보도를 인용했다. 그것은 미국에 대한 테러였고, 부시는 반테러리즘의 기치를 내건 선봉장이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테러리스트는 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를 위한 투사”(One person’s terrorist is another person’s freedom fighter). 라는 정의는 내게 존재하지 않았다. 부시는 9.11 직후 이슬람 세계를 상대로 십자군 전쟁(Crusade)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가 아랍세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취소했다. 하지만 그 선전포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무엇보다 한반도가 그 지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생각이 연수기간 내내 나를 짓눌렀다.

콘돌리자의 ‘평화를 위한 기도’

지난 3월, 드니 대학을 방문한 콘돌리자 라이스가 봉변을 당했다. 반테러리즘 강연 도중, 학생들로부터 “이라크전의 전범”이라는 집중 비난을 받았다. 썰렁한 분위기 속에 강연이 일시 중단됐다.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난 7월 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ARF(ASEAN Regional Forum)가 개최됐다. 화두는 예상대로 ‘북핵’이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모임이었던 탓에 호주 언론들도 이를 주목했다.

호주를 대표하는 언론 매체인 시드니 모닝헤럴드도 관련 소식을 전했다. 내 시선을 끈 것은 깨알 같은 기사가 아니라, 한 장의 사진이었다. “ASEAN losing



시드니대 학업동료들과 함께(왼쪽부터 필자, 오마르-사우디아라비아, 로빈-스위스, 거이-타일랜드)

patience with Pyongyang”이란 헤드라인 옆에 콘돌리자 라이스가 우아한 모습으로 그랜드 피아노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다.(사진설명-“Key player the US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performs a Brahms sonata, A Prayer for Peace, during the gala dinner at the ASEAN forum.”)

콘돌리자가 피아노를 잘 친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다. 일전 영국 인디펜던트지와 인터뷰에서 그녀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 베스트 10”을 소개한 적이 있었다. 첫 번째가 모차르트 곡이었고, 두 번째가 “sunshine of your love”였던 걸로 기억한다. 클래식과 록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녀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다자간 국제무대에서 근사하게 브람스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 신문의 한 면을 장식한 것이다. 그러나 난 그 이미지에 동의할 수 없었다.

강의실에서 난 그 이미지는 오히려 ‘평화를 위한 기도문’ 이라기보다는 ‘데퀴엠’에 가깝지 않겠느냐며, 반문했다. 오해하지 마시길, 난, 맹목적인 반미주의자가 아니다. 단지, 자칫 왜곡될 수도 있는 한 장의 스틸 컷이 던지는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 스틸을 동영상으로 확장시킨다면 어떤 그림이 될까?

예컨대, ‘지옥의 묵시록’을 본 사람들이라면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전쟁광인 킬고어 대령이 바그너의 음악을 들으며 베트남을 용단 폭격하던 그 장면을. ‘굿모닝 베트남’을 본 사람들이라면 기억할 것이다. 네이팜탄이 작열하는 정글을 배경으로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가 눈물겹게(?) 흐르던 장면을.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이, 한반도가 오버랩 된 것은 지나친 기우였을까?

‘평화’는 진부하기만 한(wishywashy) 추상명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중계차 타기, 전화연결, 리포트제작, 뉴스진행 같은 20년의 일상사로부터 온전하게 비껴나 있었던 지난 1년 간, 나는 이 질문에 고민했다. 귀국 후 내가 접한 헤드라인은 장거리 미사일에 한걸음 더 나간 “북핵, 핵실험”이었다.

김호성 스포츠부장